

## (8)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

### ■ 연구책임자

- 곽성일 연구위원

과제구분	기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구분 선정 사유	○ ASEAN이 최근 물리적 연계성(connectivity) 강화를 다시 강조하면서 새롭게 열릴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ASEAN의 연계성 강화 노력과 인프라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과제로 제시

### ■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

- ASEAN 경제공동체 진전, 대중국 과다 의존성 해소 필요성, 그리고 수출시장 다각화 및 서비스무역 확대를 포함한 수출 다변화 등을 감안해 대ASEAN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ASEAN이 추진하는 '연계성' 및 '개발격차 해소'사업 가운데 인프라 개발 부문에 관심을 둘 필요
- ASEAN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는 ASEAN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전략이며, 신남방정책의 토대가 됨.
- 우리 기업과 정부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ASEAN의 인프라 개발 의지를 인지하고, 조만간 새롭게 열릴 ASEAN 역내 인프라 개발시장 및 소비시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기회 확대에 대한 대응 요구
- 또한 인프라 개선은 장기적으로 운송비용 감소를 통한 무역비용 감소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촉진에도 기여
- ASEAN은 양자 FTA와 RCEP, 그리고 APEC 포럼 안에서 연계성(connectivity)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, ASEAN경제공동체 출범과 더불어 연계성 개선 사업의 하나로 인프라 개발을 더욱 중요한 이슈로 취급
- ASEAN 연계성 개선 사업 가운데 특히 인프라 사업은 2016- 30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되는 거대 규모 사업으로서, 토목·건축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유망시장이라는 특징을 보유했다.
- 2016년 ASEAN 정상회의 시 채택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

2025(MPAC 2025)은 2011년 출판된 그 전 버전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시해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

- ASEAN은 MPAC 2025의 이전 버전인 2011년 판에서 130여개의 사업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나, MPAC 2025는 사업수를 줄이고 5개 항목으로 분류 및 세부계획을 제시해 실현가능성을 고양
- 특히 국경간 인프라 개발(Cross-border infrastructure)이 ASEAN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지역협력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.
- 특히 ASEAN의 국경간 인프라 개발사업에 인도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참여한다면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음.

※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ASEAN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, 현재 미얀마 팔레토와 인도 미조람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 중이며 이를 태국, 캄보디아, 라오스, 베트남까지 확장할 계획임..

□ 또한 ASEAN 회원국은 균등한 발전을 위해 연계성(connectivity)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, 이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ASEAN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특히 일본과 중국은 ASEAN의 연계성 개선 노력에 따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전략을 마련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, 우리나라는 아직 ASEAN 인프라 시장에 대한 큰 틀의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음.

- 중국은 AIIB 기금과 란창-메콩 정상회의(3억 달러 원조), 일본은 'Quality Infra' 사업(7천5백만 달러) 발표 등을 통하여 ASEAN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표명

· 미국은 'ASEAN커넥트' 사업을 발표,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으로서의 ASEAN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 중

·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주요 관심 국가들은 Smart Infra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한 차별화된 ASEAN 연계성 지원 방안 추진 중

·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ASEAN 연계성 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호주와 연계한다면 新남방정책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임.

○ 현재 우리 기업은 발주기업, 수주기업, 국제개발금융 등이 참여하는 GICC (Global Infra Conference)를 통해 ASEAN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, 시공 역량 대비 설계 역량이 부족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평가

## ■ 연구목적

- ASEAN의 연계성 개선 노력이 가져올 변화를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인프라시장 진출 방안 마련에 기여
- 2016년 10월 ASEAN 연계성 심포지움 이후 ASEAN 내부에서 국가별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와 ASEAN 지역 차원의 우선 순위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.
-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실제적 진출 방안을 제시
  - 인도네시아, 미얀마, 베트남 등 주요 ASEAN 국가에 대한 진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PPP 중심의 금융활용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함.

## 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연구내용	
주요선행연구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명: Estimat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in Energy, Transport, Telecommunications, Water and San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: 2010-2020</li> <li>- 연구자(연도): Biswa Nath Bhattacharyay(2010)</li> <li>- 연구목적: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확인하고 금융조달 수요와 장애요인을 분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헌 연구</li> <li>- 계량모형 (Fay 2001)을 통해 인프라 수요 변화 추정하고 forecast 함.</li> <li>- 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취합하여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시아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, 운송, 통신, 수자원, 위생 관련 아시아 개발 도상국에서 일년에 776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,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10년간 5조 4천7백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</li> <li>- 금융재원의 마련이 인프라개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</li> </ul>
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명: Enhancing East Asian Connectivity: What Can ASEAN and Japan Do?</li> <li>- 연구자(연도): Duong Anh Nguyen and Thanh Tri Vo(2015)</li> <li>- 연구목적: MPAC을 동아시아 연계성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, 일본의 ASEAN 연계성 개선 사업 참여 필요성을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헌연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헌 연구에 나타난 연계성 개선의 효과를 동서경제회랑, 남북경제회랑, 메콩-인도 경제 회랑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</li> <li>- MPAC의 재원과 관련하여 ASEAN 인프라펀드, 자본시장, 상업은행, 다자개발은행, 정부 예산, AIB, 국부펀드 등을 지목하였으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함.</li> <li>- ASEAN의 주요 협력자로 일본, 한국, 중국을 지목하면서 그중 일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연계성 개선사업 참여 필요를 강조</li> </ul>
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명: Infrastructure for ASEAN Connectivity and Integration</li> <li>- 연구자(연도): Biswa Nath Bhattacharyay(2010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descriptive statistics를 정리 및 활용</li> <li>- 문헌 연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제성장, 경쟁력, 무역통합에 있어 인프라의 역할을 정리</li> <li>- ASEAN의 인프라개발 추세와 패턴을 연구</li> </ul>

	- 연구목적: ASEAN 경제 연계성과 통합에서 인프라 개발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 도전과제를 발굴		
4	- 과제명: Meeting Asia's Infrastructure Needs - 연구자(연도): ADB(2017) - 연구목적: 2016-2030년 사이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를 추정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	- Bhattacharyay(2010)이 활용한 방식을 이용 수요를 전망 - 문헌연구	- 2016-2030년사이 26조 달러의 인프라 수요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. 1년에 1조 7천억 달러의 수요임. - 규제 및 제도 개혁이 인프라 투자를 PPP로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함.
본 연구	- 과제명: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	- 문헌연구 - 현지 조사 - 기업체 인터뷰 및 다자개발은행 심층 인터뷰	- 대부분 연구가 ASEAN이 연계성 강화 사업이 인프라 개발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함. -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아세안의 연계성 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물리적 연계성(인프라) 강화 사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. - 선행연구는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의 수요가 확장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으므로, 본 연구는 확장된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임. - 또한 ASEAN 주요 인프라 공급국인 중국과 일본의 활동을 운송, ICT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 자료를 구축하고자함.

## ■ 주요 연구내용

- ASEAN 연계성 개선 노력의 의의를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업 현황 및 현재 진행상황으로부터 특징을 유추
  - 연계성 개선이란 성장기회에 대한 관련국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를 기존 문헌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
    - ASEAN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성 개선 사업 현황을 지속가능한 인프라, 디지털 혁신, 운송, 규제, 인적이동 측면에서 분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
    - 특히 이 가운데 물리적 연계성 개선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한국 기업이 진출한 만한 사업 부문 발굴 및 ASEAN 인프라 시장의 잠재성을 확인
  - ASEAN 역내에서 주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, 일본 등의 활동을 분석하고 성공 요인을 파악

- 한국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, 우리 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로부터 교훈을 발굴
  - 중국과 일본이 ASEAN의 물리적 연계성 개선을 위해 많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
    - 만일 우리 기업이 참여기회로부터 배제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참여가능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됨.
  - 우리 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수집하여, 성공요인과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진출 희망기업에 시사점을 제공
- 최근 ASEAN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민관협력(PPP)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, 세계은행의 PPI 자료를 토대로 PPP활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ASEAN의 PPP활용 가능성을 추론
  -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자금동원의 실현가능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, 최근 ASEAN 역내에서 사업자금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PPP방식의 자금동원 결정요인을 국가수준 데이터를 기초한 회귀분석을 통해 식별함.
    - ASEAN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수단으로 ODA와 PPP 가운데 GDP 변화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정하여 PPP가 ODA보다 저소득국에서 더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보임.
    - PPP를 활용한 ASEAN 인프라 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ASEAN 지역에서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식별 및 유의한 변수를 척도로 삼아 사례를 평가
  - ASEAN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국, 일본 등 주요국의 PPP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ASEAN의 물리적 연계성 개선 노력에 따라 새롭게 열린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마련

□ 목차 (잠정)

제1장. 서론

제2장. ASEAN 연계성 개선 노력과 인프라 시장의 확대

가. ASEAN의 연계성 개선 및 인프라 사업 현황

나. ASEAN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 분석



■ **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**

대분류	B 경제	중분류	B5 경영
-----	------	-----	-------

■ **주제어**

한글 (영문)	ASEAN 인프라 시장 (ASEAN infrastructure market )	아세안 (ASEAN)	동남아 (Southeast Asia)	민관협력 (Public-Private Partnership)
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**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**

정책수요처(정부, 기관 등)

관련부처	주요 관련성
기획재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재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반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수주 및 투자 확대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</li> <li>○ 본 과제는 ASEAN이 다시 작성한 ‘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’에 나타난 역내인프라 시장을 소개할 것이므로 기재부의 인프라 수주 지원의지에 부합</li> </ul>
외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ASEAN의 연계성 증진 노력이 결합할 경우 동아시아와 유럽간 연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주장함.</li> <li>○ 2017 한-메콩 고위관리회의에서 메콩 5개국가와 실질협력을 통한 ASEAN 통합에 기여하기로 한 점은 본 과제가 단순히 새롭게 열릴 ASEAN의 인프라 시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외교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.</li> </ul>

국정과제 관련성

목표	전략		국정과제	
	코드	명	코드	명
5	3	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	97	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
5	3	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	98	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

■ **기대효과**

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

- ASEAN 지역에 새롭게 등장할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전략 마련에 기여

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

- ASEAN경제공동체가 출범했음에도 ASEAN 연계성과 관련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격차를 메꿈.

■ 연구기간

연구년차	(1/1년차)	연구기간	10개월	시작일	2018.03.01.	종료일	2018.12.31.
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

■ 연구예산(천원)

구분	내용	금액
합계		67,000
1. 사업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비정규직 인건비</li> <li>- 사업인턴 (1,800×1인)×1월=1,800</li> </ul>	1,800
2. 공공요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우편요금(DM 발송비 포함) 300×10월=3,000</li> <li>◦ 통신요금 100×10월=1,000</li> </ul>	4,000
3.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모품 등 구입비</li> <li>- 전산소모품,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300×10월=3,000</li> <li>◦ 인쇄 및 출판비</li> <li>- 보고서 인쇄비 6×500부=3,000</li> <li>- 자료 복사비 100×10월=1,000</li> <li>◦ 간행물구입비 200×10월=2,000</li> <li>◦ 기타 수용비</li> <li>- 운송료, 주차료 등 150×10월=1,500</li> </ul>	10,500
4.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설임차료</li> <li>- 회의장임차(연구심의회) 100×2회=200</li> <li>◦ 장비임차료</li> <li>- 전산장비(업무용 PC) 200×1월=200</li> <li>- 전산장비(프린터기, 복사기 등 복합기) 200×10월=2,000</li> <li>- 회의장비임차(연구심의회) 50×2회=100</li> </ul>	2,500
5. 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내여비(서울특별시 등) (100×2인)×5회=1,000</li> <li>◦ 국외여비</li> <li>- 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항공료(Economy) (938×1인)×1회=940</li> <li>▪ 숙박비(다급지, 1호 라목) [(\$130×4박×1인)×1회]×1.13=590</li> <li>▪ 일·식비(다급지, 1호 라목) [(\$93×6일×1인)×1회]×1.13=630</li> <li>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80×1인)×1회=80</li> </ul> </li> <li>- 베트남(다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항공료(Economy) (732×1인)×1회=730</li> <li>▪ 숙박비(라급지, 1호 라목) [(\$85×3박×1인)×1회]×1.13=290</li> <li>▪ 일·식비(라급지, 1호 라목) [(\$84×5일×1인)×1회]×1.13=470</li> <li>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80×1인)×1회=80</li> </ul> </li> <li>- 필리핀(마닐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항공료(Economy) (564×1인)×1회=560</li> <li>▪ 숙박비(라급지, 1호 라목) [(\$85×4박×1인)×1회]×1.13=380</li> <li>▪ 일·식비(라급지, 1호 라목) [(\$84×6일×1인)×1회]×1.13=570</li> <li>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70×1인)×1회=70</li> </ul> </li> <li>- 중국(북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항공료(Economy) (544×2인)×1회=1,090</li> <li>▪ 숙박비(나급지, 1호 라목) [(\$160×3박×1인)×1회]×1.13=540</li> <li>▪ 일·식비(나급지, 1호 라목) [(\$113×4일×1인)×1회]×1.13=510</li> <li>▪ 숙박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137×3박×1인)×1회]×1.13=460</li> <li>▪ 일·식비(나급지, 2호 가목) [(\$89×4일×1인)×1회]×1.13=400</li> <li>▪ 준비금(여행자보험료 등) (80×2인)×1회=160</li> </ul> </li> </ul>	10,200

■ 연구예산(천원)

구분	내용	금액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초청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참석자 교통비(연구심의회 관련) (50×3인)×3회=450</li> </ul> </li> <li>◦ 시내출장 (20×2인)×5회=200</li> </ul>	
6. 연구정보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자료구입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헌자료구입비 901×10월=9,010</li> <li>- DB구입비(인프라 시장 관련) 4,000×1회=4,000</li> </ul> </li> <li>◦ 특근매식비 (6×2인×7회)×10월=840</li> </ul>	13,850
7. 전문가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참석 사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표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300×1인)×6회=1,800</li> <li>- 토론비(전문가초청간담회) (100×3인)×6회=1,800</li> </ul> </li> <li>◦ 연구 및 회의 관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비(연구심의회) (250×3인)×3회=2,250</li> </ul> </li> <li>◦ 기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정료 500×1회=500</li> <li>- 검독료 (200×5인)×1회=1,000</li> </ul> </li> </ul>	7,350
8. 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담회의비 [(30×8인)×1회]×10월=2,400</li> <li>- 연구추진회의비 [(30×5인)×1회]×10월=2,800</li> <li>- 연구심의회비 (30×10인)×3회=900</li> </ul> </li> <li>◦ 학술회의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(30×15인)×6회=2,700</li> </ul> </li> </ul>	8,800
9.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외부용역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문조사 대행비 3,000×1회=3,000</li> </ul> </li> <li>◦ 위탁연구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연구(PPP를 활용한 주요국의 대ASEAN 인프라 사업 사례 분석) 5,000×1건=5,000</li> </ul> </li> </ul>	8,000

※ 국외출장(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)

출장지(방문기관)	인도네시아(한-인니경협사무국, 인도네시아 투자청(BKPM))
출장목적	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사업의 현황과 ASEAN connectivity 참여 정도를 확인
출장자(역할)	곽성일 연구위원 (현지 인터뷰 및 자료 수집)

출장지(방문기관)	베트남 (CIEM, 메콩 개발연구소, 베트남 교통부)
출장목적	메콩지역과 베트남에서 진행중인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 현황 파악과 한국 건설 기업에 대한 평가 청취 및 ASEAN connectivity의 진전에 따른 인프라 개발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
출장자(역할)	곽성일 연구위원 (현지 인터뷰 및 자료 수집)

출장지(방문기관)	필리핀(ADB)
출장목적	ADB에서 추진하고 있는 ASEAN의 인프라 개선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열릴 시장에 대한 기대를 확인
출장자(역할)	곽성일 연구위원 (현지 인터뷰 및 자료 수집)

출장지(방문기관)	중국
출장목적	AIIB가 ASEAN 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사업 현황과 한국기업의 참여정도를 확인
출장자(역할)	곽성일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1인 (현지 인터뷰 및 자료 수집)

※ 외부용역 및 분담금(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)

주요내용	우리 건설기업 대상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여부 및 진출에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조사
대상기관	설문기관

주요내용	PPP를 활용한 주요국의 대ASEAN 인프라 사업 사례 분석
대상기관	PPP 전문가 섭외